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4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11일(음력 5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사진⑤

조계사 일주문 '활짝' 총본산 위용 되찾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의 일주문이 40여 년 만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일주문의 절반가량을 가리고 있던 건물 '동양금박'이 철거되면서 총본산 위상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게 됐다.〈사진①〉

1910년 '각황사'로 창건된 조계사에 일주문다운 일주문이 세워진 건 불과 20여 년 전. 경내 출입문 역할을 하던 나무문이 1984년 해체됐고〈사진②〉, 이후 전통 양식의 구조물이 세워졌으나 주변 주택과 상가 등에 둘러싸여 좁은 골목을 지나야 경내에 들어설 수 있었다.〈사진③〉

이에 조계사는 1990년부터 주변 부지 매입에 나섰고, 2004년에는 '조계사 성역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여법한 문'으로서의 일주문 건립도 포함됐다.

2000년, 조계사 사부대중은 일주문을 세우기 위한 1000일 기도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01년 부지 매매계약 체결, 2002년 부지 매입, 2005년 기공식을 거쳐 2006년 일주문이 완공됐다.〈사진④〉

하지만 건립 당시 부지(15평 규모)가 협소해 동양금박 건물과 밀착돼 있었다.〈사진⑤〉 조계사 사부대중은 일주문 전면 개방을 위해 또 한 번 원력을 결집했고, 오랜 노력 끝에 올해 5월 동양금박 건물 철거가 이뤄졌다.〈사진②③④⑤=조계사 제공〉 김내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불교계 "국민 위한 정부되길"

신중일 · 임은호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4일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회의를 열고 오전 6시 21분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했다.

당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밝힌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선 직후 조계종, 태고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잇달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에게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달라"고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4일 발표한 축하메시지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소중한 계기"라며 "힘들고 고단했던 질곡의 여정을 넘어, 이제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 뜰에 곱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분열과 대립을 뒤로하고 통합과 치유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정 운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줄 것"을 당부한 스님은 "조계종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회 화합을 위해 새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 나가겠다. 국민이 늘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온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하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내란극복과 국민통합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이 대통령에 대해 "힘든 유년시절의 어려움과 숱한 인생의 고난을 오로지 민

제21대 대선에서 49%로 당선
4일 취임선서…임기 바로 시작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
李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전해
종지협 "정의로운 나라 기대"

생과 정의를 위한 일념으로 극복해온,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인욕행(忍辱行)'의 실천자"라고 상찬하며 "당선자의 승리는 곧 우리 국민이 다시 한 번 자유와 평등, 정의와 연민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 민심의 표현"이라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행(慈悲行)을 본받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공존과 상생의 복지국가,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이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이끌어 달라"며 "태고종은 새 정부가 국난을 수습하고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불자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정치적 연륜이 깊으신 만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천태종은 날마다 국운의 융창을 부처님 전에 발원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축하논평에서 "지금 국내의 정치와 경제 상황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시기다. 정치는 안정되게, 경제는 원활하게, 외교와 국방은 든든하게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바로 서는데 기여하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살뜰히 보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시작이 경제회복,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하며 "통일 한국의 남북공간 자유 왕래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철폐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확장되어 새로운 경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역시 "분열이 아닌 화합, 배제가 아닌 포용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며 "총지종은 새 정부가 만들어갈 희망의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 지도자 단체의 축하도 이어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 특집 3면〉

대한불교진흥원 2025년 하반기
• 4대 공모사업
•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22회 대원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30일(화)

제11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6월 23일(월) ~ 7월 18일(금)

제11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25일(금)

제12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22일(금)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2025년 9월 2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일 ~ 9월 2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2025년 9월 9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일 ~ 9월 9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도록
강의 영상 제공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